



홍천군, 2020년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발걸음

홍천군은 관광도시 도약, 교통편의 제공,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천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현재 관광객 유치와 홍보마케팅을 위해 팸투어와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제를 운영 중이다. 새로운 관광 상품개발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관광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시티투어는 주요 관광지와 농촌체험마을,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코스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가 모두 갖춰진 새로운 종합 관광코스로 운영해 수도권 배후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간 700만 명 이상이 이용 중인 서울~양양 고속도로 홍천휴게소의 실내외 공간을 활용해 주요관광지와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계획을 수립했다.



홍천 9경

1경 팔봉산
한국의 100대 명산으로 해발 327.4m의 나지막한 산이다. 여덟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라 팔봉산이라 한다. 봄, 가을은 등산객들이, 여름철은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가족 단위 산행에 좋고 백사장이 있어 야영하기에 좋다.

2경 가리산
해발 1천51m의 가리산은 산 정상에 서면 탁 트인 시야와 발아래로 펼쳐진 소양호의 풍경이 등산객들의 발을 묶는 곳이다. 이 일대를 홍천군에서 자연 휴양림 지역으로 조성해 통나무집, 야영장, 체육 시설을 갖춘 가족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다.

3경 미악골
미악골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을 지나던 풍수가가 정승이 나올 명당자리라고 했던 곳이다. 선녀가 목욕했다는 암석 폭포 등 바위들이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고 있어 미암동 또는 미악골이라 불렀다.

4경 금학산
해발 652m의 정상에 오르면 태극문양의 노닐마을을 조망할 수 있다. 백두대간에서 오대산을 거쳐 영서내륙 한강 변까지 깊숙이 뻗어 내린 한강기맥의 끝자락 장락산맥이 한눈에 들어온다. 낮은 산이지만 산정으로 오르는 등산코스가 다양해 최고의 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서 유명하다.

5경 가령폭포
가령폭포는 자연 속에 숨겨진 오지의 백암산 서남쪽 기슭에 숨어 있으며 개령폭포라고도 불린다. 우렁찬 굉음을 토하며 수십 m의 낭떠러지를 뒤흔들며 내리꽂는 자태가 웅장하다. 폭포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어 아직도 깨끗한 폭포수와 자연스러운 멋을 간직하고 있는 폭포 중의 하나이다.

6경 공작산 수타사
공작산은 해발 887m로 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홍천군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며, 산세가 공작이 날개를 펼친 모습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7경 용소계곡
이 계곡에는 옛날 절터와 삼층석탑이 아직 남아 있다. 삼층석탑을 옮기려 할 때 호랑이가 나타나는 바람에 옮기지 못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용소계곡은 가족 단위의 등산이나 산림욕 코스로 적당하며 당일 산행으로 알맞은 곳이다.

8경 살둔계곡
살둔계곡의 물은 천연기념물인 어름치와 열목어가 서식하는 1급수를 자랑하고 있다. 봄에는 기암괴석과 진달래의 조화로 경관이 수려하며, 물가 주변에는 바위들이 많아 한낮의 즐거운 피서를 즐길 가족 단위의 휴양지로 적당하다.

9경 가칠봉삼봉약수
가칠봉은 백두대간 제27구간 갈전곡봉에서 남서로 뻗은 능선 위 2.5km 지점의 첫 번째 봉이다. 태고의 원시림 속에 숨겨진 오지의 산으로, 전나무와 활엽수가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산자락에 있는 삼봉약수로 더 유명한 산이다. 여름엔 약수터 옆 키 큰 잎갈나무 숲 그늘이 시원하고 가을엔 주위의 깊은 숲에 오색 단풍이 운치를 더한다. ❶

홍천강 시대를 여는 용문~홍천 철도 34km

우리의 후손에게 철도여행이 일상인 삶을
물려주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홍천군
HONGCHEON-GUN